



東 · 亞 · 文 · 化 · 44

白居易詩研究

정진걸

1. 문제 제기
2. 연구 방법
3. 백거이의 시관
 - 1) <여원구서>
 - 2) <신악부서>
 - 3) <책림>

白居易詩研究

정 진 결*

1. 문제 제기

기존의 백거이 시 연구는 주로 풍유시에 집중되었다. 풍유시에 대한 중시는 호적의 《백화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악부운동”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¹⁾, 그 연장선상에서 풍유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에 유행하였던 현실주의 중시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풍유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풍유시는 시의 효용론적 관점에서 지어진 것으로서, 그 기원은 《시경》의 풍자 정신이다. 현실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비판의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 평이한 시어로 천근 하게 표현하였다. 문학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현실 생활의 충실한 반영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보다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풍유시의 이러한 성격을 적극 제창하여 원진과 더불어 시가혁신운동을 벌이니 그

* 서울대학교 중문과 강사

1) 李丹・尙永亮 共著, <白居易百年研究述論>, p. 219. 中州學刊, 2006년 5월 제3기.

것이 곧 신악부운동이다.

이러한 견해는 풍유시의 기원·특징·의미에 대해서 유기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풍유시에 한정하지 않고 백거이 작품 전체로 시야를 확장시키면,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발생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사람 마음속의 일을 말하여 얻어내는 것, 이것은 진실로 백거이의 장점이
다. 그러나 감정과 뜻이 지나치게 상세한 것에서 잘못을 범하였고, 풍경과
사물은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에서 잘못을 범하여, 마침내 친근 하게 되었고,
대략 여운이 없으니, 이것이 단점인 바이다.²⁾

백거이 시 전체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서 보듯이 상세·노출·친근은 백거이 시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만약 노골적인 표현이나 친근한 풍격을 기존의 연구처럼 풍유시의 효용론적 시관과 연관지어서 이해한다면, 효용론과 무관한 여타의 시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³⁾

친근과 노출이 전체 시에 보이는 모습인 만큼, 풍유시의 현실 비판적 내용과 연관 지은 상기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풍유시의 특징은 풍유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2) “道得人心事，此固樂天長處。然情意失於太詳，景物失於太露，遂成淺近，略無餘蘊，此其所短處。” 張戒 著，《歲寒堂詩話》。(《白居易資料彙編》，p. 71에서 재인용)

3) 만약 백거이가 풍유시에 전폭적인 공을 들였다고 한다면, 풍유시의 작시 방법이 다른 시에 전이되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특수한 작시 기법이 다른 시로 자연히 옮겨갈 만큼 풍유시에 공을 들이지는 않았다. 이는 백거이 전체시에서 풍유시가 차지하는 분량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거이는 75세까지 총 2,800여수의 시를 지었는데, 이 중에서 풍유시는 150수에 불과하고, 작시 기간 역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10년 즉 원화 년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풍유시에 전폭적인 공을 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적시·감상시·잡율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기존의 풍유시 연구로 얻은 이론과 해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 시작으로서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원화 10년 백거이는 자신의 시를 처음으로 편집하면서 풍유시·한적시·감상시·잡율시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분류가 저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각각의 종류의 시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풍유시만을 떼어내어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연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편이 훨씬 능률적이다. 게다가 풍유시의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조금의 손색도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들은 백거이의 분류를 수용하고, 풍유시를 개별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미 풍유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백거이가 언급했으므로, 이것을 거듭 연구할 필요는 없었다. 연구자들이 밝혀야 할 것은, 여타의 시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풍유시를 백거이가 왜 써야 했는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해야 할 것은, 풍유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풍유시의 내용적 특수성만을 설명하기 위한 종속적 단계로서 표현 방법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점이 생겼다.

분류에 관한 백거이의 언급을 다시 살펴보자.

좌습유 이래로 겪고 느끼고 미자흥비에 관한 것, 또 무덕에서 원화까지, 일로 말미암아 제목을 세우고, 신악부라고 제목을 붙인 것, 도합 150수를 풍유시라고 합니다. 또 공무에서 물러나 홀로 거하거나, 혹은 병으로 이사하여 한가롭게 거하면서, 즉함을 알고 온화함을 지키며, 성정을 읊조리며 완상한 것 100수를 한적시라고 합니다. 또 사물이 외부에서 끌어당기고, 정리가 내

면에서 움직여서, 느낀 것을 따라서 영탄으로 나타난 것 100수를 감상시라고 합니다. 또 오언·칠언·장구·절구가 있어, 100운으로부터 양운에 이르기까지의 400여수를 잡을시라고 합니다. 모두 15권 대략 800수입니다.⁴⁾

백거이가 비록 네 종류로 시를 나누었지만, 사실은 고체시와 근체시의 분류가 선행되었다. 형식면에서 보자면, 풍유시·한적시·감상시는 모두 고체의 형식이고, 잡을시는 근체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즉 고체와 근체로 나눈 뒤에 고체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용상의 차이에 따라 고체시를 재분류하였다. 내용상의 차이에 따라 셋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내용 이외의 것은 분류 기준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만약 시의 구성 요소를 크게 ‘시에 담는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면, 표현하는 방법에는 다시 묘사·서술·구법·자법·대구법·장법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백거이는 내용만을 분류 기준이 삼았으므로, 표현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풍유시의 모종의 표현 방법이 한적시나 감상시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 방법은 풍유시·한적시·감상시의 내용적인 차이와는 무관하다. 표현 방법이 내용적인 차이와 무관하다면, 내용과 관련지어 표현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즉 풍유시·한적시·감상시 사이에 존재하였던 애초의 구별은 내용에 있을 뿐이므로, 풍유시의 내용적 차이를 담보하는 요소 혹은 내용적 특수성이 발현된 요소로 표현 방법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4) “自拾遺來，凡所適·所感，關於美刺興比者，又自武德訖元和，因事立題，題爲新樂府者，共一百五十首，謂之諷諭詩。又或退公獨處，或移病閑居，知足保和，吟玩情性者一百首，謂之閑適詩。又有事物牽於外，情理動於內，隨感遇而形於歎詠者一百首，謂之感傷詩。又有五言·七言·長句·絕句，自一百韻至兩韻者四百餘首，謂之雜律詩。凡爲十五卷，約八百首。” <與元九書>，《白居易集》，p. 965.

하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고, 마침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아마도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분류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간과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풍유시만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풍유시·한적시·감상시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그 상사점이 매우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시 분류의 의미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해결책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내용적 차이와는 별개로 표현 방법을 연구하되, 풍유시·한적시·감상시에다 잡율시까지 아우른 하나의 詩群을 만들어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저는 수개월 동안 자루 속의 시를 검토하여, 새로운 시와 옛날에 지은 시를 얻었으니, 각기 종류대로 나누고, 나눈 것을 가지고서 권의 목차를 만들었습니다.⁵⁾

이 구절은 백거이의 창작과 분류의 순서에 대해 알려준다. 이 구절에 의하면, 백거이는 먼저 시를 짓고, 지어놓은 시를 나중에 분류하였다. 즉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시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다. 애초부터 별도의 기준으로 지었던 것도 아니고, 분류되기

5) “僕數月來，檢討囊帙中，得新舊詩，各以類分，分爲卷目。” <與元九書>

전까지는 일군의 시로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니, 지금 다시 통합할 여지는 있다. 게다가 풍유시·한적시·감상시·잡율시는 모두 동일한 기간에 지어졌다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백거이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시를 편집하였다. 그 중에서 2차 편집이 이루어졌던 장경 4년까지만 풍유시·한적시·감상시·잡율시의 4분류법을 적용했고, 이후로는 격시와 율시의 2분류법을 적용했다.⁶⁾ 그렇다면 4분류법에 속한 시는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 장경 4년까지만 지어진 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4분류법의 시군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2분류법의 시군과 구별지어 볼 수 있다.

백거이가 왜 분류법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백거이 스스로 시를 분류하였는데, 시 분류법이 변했다면, 백거이의 시관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 시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시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발점을 장경 4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

장경 4년이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백거이 전체 시에 있어서 중간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백거이는 총 75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그 중 71권이 현존한다. 이 중에서 시는 38권인데, 장경 4년까지의 시가 도합 20권이다. 詩作의 분량 면에 있어서 중간에 해당한다 하겠다. 장경 4년, 백거이의 나이는 53세였다.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짓기 시작하여 75세까지 지속적으로 시를 지었으니, 53세는 詩作의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중간에 해당한다.

6) 金在乘 著, 《白樂天詩研究》, pp. 35~39.

이상의 이유로 필자는 장경 4년을 기준으로 삼고, 백거이의 전체 시를 전반기의 시와 후반기의 시로 재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몇 가지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필자가 백거이의 시를 통합하고 재분류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은, 풍유시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풍유시·한적시·감상시·잡율시의 고유한 내용적 특성 보다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발견되는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용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필자의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풍유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풍유시의 내용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주된 사상은 유가였고, 효용론적 시관을 지녔던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었다. 또한 백거이를 평가하여 현실주의 문학의 대표자로서 그 가치를 높이 받들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의 효용론적 시관은 미학적 특성을 도외시킨 매우 협소하고 경직된 것으로서, 이후 중국문학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그것이 어떤 평가이든, 그 기저에는 유가적 사상과 효용론적 시관에 대한 수긍이 있으며, 다시 풍유시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필자의 의도는, 기존에 이루어놓은 대부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백거이의 사상과 시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견해처럼, 백거이가 유가 사상을

7) 劉綱紀·李澤厚 主編, 《中國美學史》, 1권 上册, p. 43.

계승했는지, 그가 진실로 효용론적 시관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둘째, 풍유시·한적시·감상시·잡율시는 모두 일정한 기간에 지어진 작품들, 즉 특정 시기의 시군이라고 필자는 본다. 그런데 백거이에게는 또 하나의 특정 시기의 시군이 있었다. ‘원화체’ 혹은 ‘원백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원화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대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⁸⁾ 그러나 ‘원화체’와 ‘원백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고, 당시에 매우 유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⁹⁾ 최소한의 범위 설정은 가능하다. ‘원진과 백거이의 시 중에서 원화년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시’¹⁰⁾라고 설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설정을 고려하면서 전반기의 시를 다시 보자.

필자는 백거이 전반기의 시를 30대 초반부터의 시라고 설정하였다. 정원19년(803년) 32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출사하였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원화 원년(806년)은 백거이가 35세 되던 해로서, 출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시기다. 또한 전반기 시를 장경4년(824, 53세)까지로 한정했는데, 원화 15년(820년)은 49세가 되던

8) ‘원화체’가 어떤 시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역대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元和體’原初內涵考論>(尙永亮·李丹 共著, 《文學評論》 2006年 第2期)에는 다양했던 역대의 견해가 분류·정리되어 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唐代부터 清代까지의 문헌에 출현한 견해를 분류할 때, 원화체의 종류는 크게 넷이고, 그 지칭하는 바는 모두 아홉이다.

9) “파촉과 강초 일대로부터 장안에 이르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서로 본뜨고 흉내내며, 다투어 새로운 시를 지으면서, 스스로 이것을 ‘원화체’라 불렀다(巴蜀江楚間, 泊長安中少年, 遞相倣效, 競作新詞, 自謂爲元和體).”, <白氏長慶集序>, 《白居易集》.

10) ‘원화년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이라고 다소 애매하게 설정한 까닭은, 원진·백거이의 시가 사회에 유행하여 많은 모방작을 낳았는데, 그 모방작의 성격 또한 함께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해다. 역시 시간상 얼마 떨어지지 않는다.

양적인 면을 살펴보자. 《백거이집전교》에 수록되어 있는 편년에 의하면, 전반기의 시는 모두 1396수다. 이 중에서 원화년간에 지어진 1037수다. 전반기 시의 75퍼센트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원화체가 백거이 전반기의 시와 상당 부분 중복되며, 시간상으로는 분량상으로는 전반기 시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화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백거이 전반기의 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백거이의 시관

백거이는 <여원구서>, <신악부서>, <책림>등에서 문학과 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부분을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은 백거이의 사상 및 시관을 평가하였다. 이제 백거이의 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기존 견해의 타당성을 점검해보자.

풍유시라고 하는 것은 검제의 뜻입니다. 한적시라고 하는 것은 독선의 뜻입니다. 때문에 저의 시를 읽으면 저의 도를 알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잡율은 혹 한 때나 한 사물에 유혹되어, 한 번의 웃음과 한 번의 울조림으로 나와서, 홀연히 구절을 이루었던 것이니, 평생동안 숭상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친인과 벗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때에, 한을 풀고 기쁨을 돕고자 하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차례를 정하는 중간에, 아직 삭제하여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니, 다른 때 나를 위하여 이 글들을 편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생략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저의 시 중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의 것은, 실로 잡율시와 <長恨歌> 이하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의 때가 중시하는 것은 제가 경시하는 것입니다.¹¹⁾

이 글에서 백거이는 풍유시와 한적시를 중시하였는데, 검제와 독선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검제와 독선은 《맹자》에 보이는 사상으로¹²⁾, 치세와 난세의 처세법에 관한 유가의 대표적 견해다. 유가적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풍유시와 한적시를 중시했다면, 마찬가지로 유가적 사상과 무관하기 때문에 감상시와 잡을시를 경시했다. 사상적으로 유가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가 사상을 옮겨낸 시를 중시하였으니, 유가적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유가는 현실 중시의 사상이다. 문학이나 예술은 현실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용도이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문장은 마땅히 때를 위하여 지어야 하고, 시가는 마땅히 일을 위하여 지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¹³⁾

“爲事”와 “爲時”는 목적성을 지닌 글을 가리킨다. 목적성의 대부분은 현실개량이다. 사회의 불량한 부분은 제거하고 우량한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성격의 글을 써야만 한다.

11) “謂之諷諭詩，兼濟之志也。謂之閑適詩，獨善之義也。故覽僕詩，知僕之道焉。其餘雜律詩，或誘於一時一物，發於一笑一吟，率然成章，非平生所尚者，但以親朋合散之際，取其釋恨佐權。今銓次之間，未能刪去，他時有爲我編集斯文者，略之可也。…今僕之詩，人所愛者，悉不過雜律詩與長恨歌已下已。時之所重，僕之所輕。”
〈與元九書〉

12) “窮則獨善其身，達則兼善天下”，《孟子·盡心章句上》

13) “始知文章合爲時而著，歌詩合爲事而作。”〈與元九書〉

지금 포폄의 글에 그 내용이 없으니, 권선징악의 도가 결핍되어진 것입니다. 찬미하고 풍자하는 시에 정치와 관련이 없으니, 보충하고 성찰하는 뜻이 폐기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장구를 갖고 다듬은들 장차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¹⁴⁾

순문학적 가치 보다는 권선징악과 같은 사회적 효용성에서 더 큰 문학의 가치를 찾았다. 이것이 확대되어 통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국풍의 성쇠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왕정의 득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들리며, 인정의 애락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신화와 임금이 친히 살펴보고서 짐작하니, 정치에서 버려진 것을 닦고, 빠진 것을 보충하며, 인간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은 즐겁게 되고 수고로운 것은 편안하게 됩니다.¹⁵⁾

시는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통치자는 반영된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펼친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시는 현실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끈이다. 이 끈이 끊어지면, 즉 채시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의 모든 효용성은 무의미해진다. 채시제도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효용론적 시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견해가 실제 창작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 “신악부”다. 때문에 신악부에 대한 백거이 스스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을 수 있

14) “今褒貶之文無覈實，則懲勸之道缺矣。美刺之詩不籍政，則補察之義廢矣，雖彫章鏤句，將焉用之。”《策林·議文章》~

15) “國風之盛衰，由斯而見也，王政之得失，由斯而聞也，人情之哀樂，由斯而知也。然後臣君親覽而斟酌焉，政之廢者修之，闕者補之，人之憂者樂之，勞者逸之。”《策林·采詩》~

었다.

입금을 위하고, 신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만물을 위하여 글을 지었고, 문장을 위하여 글을 짓지는 않았습니¹⁶⁾다.

문학을 하는 이유가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있다면, 그 문학은 현실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학이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현실 역시 문학에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문학과 현실이 괴리되면, 시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인들의 유희 수단으로 전락한다. 현실과의 연관성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신악부를 현실주의 문학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백거이를 현실주의 시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상은 기존의 중국 문학사와 백거이 관련 연구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필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논지의 방향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위의 견해를 점검해 보기로 하자.

백거이의 유가적 사상과 시관에 관련한 대개의 연구 논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근거로 제시하는 원문이 <여원구서> · <신악부서> · <책림>을 포함한 몇 편에 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들 글에 보이는 견해가 매우 확실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 몇 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이만큼 확실한 언급을 찾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이유다. 왜 몇 편의 글에만 유가적 사상과 시관이 매우 강렬하게 피력되어 있는 것일까? 이들 글의 성격에 그 답이 있다.

16) “爲君爲臣爲民爲物而作，不爲文而作也.” <新樂府序>

1) <與元九書>

<여원구서>는 원화10년에 백거이가 원진에게 보낸 편지다. 당시 백거이는 강주사마로 폼적되었고, 원진 역시 통주자사로 지내고 있을 때였다. 폼적된 신분으로 폼적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문학관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문학관을 밝혀야 할 필요가 폼적과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거이가 강주사마로 폼적된 명목상의 이유는 인륜을 저버리고 명교를 해쳤기 때문이었다.¹⁷⁾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백거이의 풍유시와 신악부 때문이었다. 정치의 잘못과 권력자의 비리를 풍유시에서 강렬하게 비난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것이 축적되다가 끝내 강주사마로 폼적되었다.

비판과 견제는 문인의 몫이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폼적되었으니, 그 억울함이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거이는 이것을 시로 표출하였다. 폼적지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에는 억울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억울함을 편지의 형식으로도 표출했는데, 그것이 곧 <여원구서>다. 친구이자 같은 문인이고 정치적 동료였으므로,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좀 더 강렬하게 쓴 것 뿐이다.

17) “唐의 《實錄》을 기초로 작성된 《冊府元龜·罪謫篇》안에 기재된 것과 《舊唐書·白居易傳》의 중심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 「백거이는 대자좌찬선대부다. 이전에 백거이의 어머니가 꽃을 구경하다가 우물에 추락하여 죽었는데, 당시 백거이는 <賞花> 및 <新井>의 시를 지었으니, 명교의 선비들이 그것을 비난하였다.」(以唐朝《實錄》爲基礎的《冊府元龜·罪謫篇》裏的記載與《舊唐書·白居易傳》的中心部分幾乎相同,「白居易爲太子左贊善大夫. 先是居易母因看花墮井死, 時居易作賞花及新井詩, 名教之士譏焉.」)” 花房英樹 著, 《白居易》, p. 17.

억울함을 호소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그 행위가 떳떳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그 행위로 인해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원구서>를 보자. 풍유시에 겸제의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사상적 기원을 유가에 둬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풍유시의 정신을 시경의 풍자 정신과 연결시킨 것은, 풍유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두 첫째의 방법에 해당한다.

풍유시 때문에 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거이는 풍유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풍유시를 읽으면 자신의 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풍유시를 맨 앞에 위치하도록 편집함으로써 그 가치를 돌출시켰다. 둘째의 방법에 해당한다.

강조가 지나치면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게 되거나 극단적 편협함으로 흐를 수 있다. 백거이도 마찬가지였다. <여원구서>에 보이는 과장되고 편협한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 잡을시는 생략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결코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詩作에서 그 비중이 가장 컸다.

2. <장한가>나 <비파행>등의 감상시에 대해서 자신이 중시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들 작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자부심을 보였다.

3. <시경>의 風雅比興 원칙을 강조하여 陶淵明이나 謝朓의 시를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나는 그것이 풍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다(麗則麗矣, 吾不知其所諷焉)”라고 폄하하였으나, 백거이에게 이러한 성격의 작품으로 명작들이 많았다.

18) 이하 4항의 견해는 王運熙 著, <白居易詩歌의幾個問題>(《學術研究》, p. 116. 2003년 제5기)를 참조하였다.

4. 문학 비평 방면에서의 편벽 되고 과격한 의론은 당대의 다른 작가에게서도 보이는 것이다. 李白의 경우 <古風其一>에서 시경의 風雅正聲을 강조하고, 楚辭나 漢賦 그리고 建安 이하의 시풍에 대해 경시하였지만, 이것은 복고를 강조하고 시경을 존중할 때의 일시적인 과격한 의론일 뿐이니, 그 모습이 백거이와 일치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王運熙는 “<여원구서>가 비록 백거이의 중요한 논문이지만, 결코 그의 전체 시각과 주장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¹⁹⁾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 고대의 적지 않은 작가들이 그 문장 속에서 자기의 문학 비평과 주장을 왕왕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문장은 특정 상황의 제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왕 편벽 되고 과격한 의론으로 되었으니, 문학에 대하여 냉정하게 천명하고 서술한 전체적 시각과 주장은 아니다”²⁰⁾라고도 하였다.

결국 <여원구서>는 억울함을 친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편지로서, 과장과 편협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여원구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반드시 감안해서 해야 한다. 즉, 유가 사상을 학습하고 시경을 존중했던 한 사람으로서 백거이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신악부서>

19) “<與元九書>雖是他的一篇重要論文，但并不足以代表他的全部看法和主張”，王運熙，上揭書，p. 116.

20) “我國古代不少作家，在其文章中往往發表自己的文學批評主張，這種文章，由於受到特定場合的限制，往往發爲偏激之論，而不是冷靜地闡述對文學的全面看法與主張” 王運熙，上揭書，p. 116.

<신악부서>의 自註에서도 밝혔듯이, 신악부는 원화 4년에 지은 작품이다. 당시 백거이는 좌습유라는 간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 직책은 원화 3년부터 원화 5년까지 맡았는데, 원화 3년과 원화 5년이 轉職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시기였으므로, 좌습유로서의 본격적인 활동기간은 원화 4년일 뿐이다. 신악부의 창작기간이 좌습유의 본격적 활동기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악부의 창작이 좌습유의 활동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당시에 한림학사에 발탁되고 몸은 간관에 있었습니다. 손수 간지를 청하여 상주를 아뢰는 것 이외에, 사람들의 병통을 구제할 수 있고, 당시의 빠진 것을 보충할 수 있으나, 지적하여 말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번번히 그것을 읊어 노래하였습니다.

이 언급 대로라면, 간관 업무의 일환으로 신악부 창작이 이루어졌다. 업무 때문에 시를 짓는다면,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시를 지어야 할 것이다. 업무를 위하여 시를 짓는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성이 존재할 것이다. 목적성과 기획성이 존재하는 시는 여타의 일반적인 시와는 그 모습이 다르므로, 달라진 모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백거이는 <신악부서>라는 특수한 시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즉, 간관 행위의 일환으로서 신악부의 창작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악부를 “爲君爲臣爲民爲物而作”이라 규정하였던 것이다. 문학성 구현 보다는 간언의 극대화에 그 창작 목적이 있었으므로 “不爲文而作也”라고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신악부서>의 내용을 풍유시까지 확장시켜서 풍유시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풍유시를 백거이의 대표적 시라고 생각했으므로, 신악부서의 내용은 마침내 백거이의 대표

적 시관으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신악부가 풍유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사회 부패상에 대한 고발이라는 내용적 공통성 때문에 신악부가 풍유시에 속해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풍유시에는 신악부와 같은 목적성과 기획성이 없다. 신악부처럼 특정 기간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신악부서>는 오직 50수의 신악부에 대한 설명일 뿐, 3000여수의 시를 대표 할만한 시관으로 간주하기에는 보편성이 크게 부족하다.

3) <책림>

유가 사상과 효용론적 문학관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료로는 <책림>을 꼽을 수 있다. 의론성 산문이기 때문이고, 총 75편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주장을 펴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책림>이 유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된 일종의 ‘특화’된 글이라는데 있다.

백거이는 원화 원년(806년) 교서랑을 그만두고, 원진과 더불어 制科 즉 「才識兼茂明於體用科」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華陽道觀에서 두문불출하며 이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이 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대비책으로 작성한 것이 <책림>이다. 일종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制舉(制科)는 시책을 유일한 시험 항목으로 삼아, 시무를 분석하는 거자의 능력을 검사하고 측량하는데 목적이 있다.”²¹⁾ 목적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려면, 시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분

21) “制舉以試策爲惟一試項, 以檢測舉子分析時務的能力爲目的.” 付興林 著, <論白居易的施政觀・歷史觀及哲學觀 - 以《策林》爲中心>, 《西南師範大學學報》, p. 179, 제32권 제2기.

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백거이는 유가 사상으로 잡았다. 왜냐하면 유가 사상이 唐代의 정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백거이는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유일한 출세의 길로 여겼다. 과거의 주요 고시 내용은 유가의 경전이었으니, 이 때문에 일단 과거의 응시하고자 하면, 유가 경전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²⁾

이 견해처럼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유가를 학습하였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책림>에는 당연히 유가 사상이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책림>에 유가 사상이 담긴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백거이 개인의 사상적 경향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책림>에 근거해서 백거이의 사상을 판단하는 것 역시 지나친 모습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顧學頤 校點, 《白居易集》, 中華書局

陳友琴 編, 《白居易資料彙編》, 中華書局出版

金在乘 著, 《白樂天詩研究》, 明文堂

俞炳禮 著, 《白居易詩研究》, 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花房英樹 著, 《白居易》,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綱紀・李澤厚 主編, 《中國美學史》, 谷風出版社

尙永亮・李丹 共著, <白居易百年研究述論>, 《中州學刊》, 2006년 5월 제3기

尙永亮・李丹 共著, <‘元和體’原初內涵考論>, 《文學評論》, 2006년 第2期

王運熙 著, <白居易詩歌的幾個問題>, 《學術研究》, 2003년 제5기

付興林 著, <論白居易的施政觀・歷史觀及哲學觀>, 《西南師範大學學報》, 제32권 제2기

22) “白居易由於出身於寒微門第, 以科第唯一進身之出路, 而科第的主要考試內容是儒家經典, 因此一應科舉, 不得不研究儒家經典.” 俞炳禮 著, 《白居易詩研究》, p. 60.